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2.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필요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체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투자자산 리뷰, 수시 이슈사항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체투자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 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되었음에도, 각 부문의 위험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결산시점 손익 악화 등에 사전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내규에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금액, 손실건, 이슈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율, 공실률, 임대료, Cap Rate, 수요 변화 등 각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재무지표, 지급여력비율, RAAS 계량평가 항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을 경영진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유동성리스크 관리 업무 불합리

내규「리스크관리규정」및「리스크관리지침」등에 유동성리스크 정의, 측정대상, 담당부서, 관리·보고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각 계정별 수지차, 듀레이션 관리 등 ALM, 계정간 결손보전 등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종합적 유동성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을 경영진 및 관련 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유동성 관련 위기상황 분석은 실시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장기보험에 대한 해약률 ●배 가정시 영향도만을 점검하고 있어 전사적인 스트레스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기자금 추정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추정 방법도 해당 시점마다 달라 추정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단기자금 추정결과에 따른 경영전략 및 대응방안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계정별 ALM, 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각 계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 전체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수적이고 상세하게 적용하며 장래 유동성 잔액 추정방법을 문서화하여 담당자 변경 등에도 일관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한도관리 업무 미흡

회사는「대체투자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품별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대체투자 일반계정 중 SOC 비중과 퇴직계정 중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 ◉◉% 수준으로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SOC, 부동산에 대한 국내 개별투자 한도를 대체투자 자산종류 중 가장 크게 설정하였으며,

특히, SOC 자산 중에서도 투자비용 회수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BTO)의 비중이 ▦%이고, 이 중 도로·철도가 ▥%를 차지하고 있어 손실 발생시 위험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시장상황의 변동, 대체투자 자산별 특성 및 위험요인, 위험집중의 분산, 원리금 회수의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대체투자자산 사후점검 기준 운영 미흡

회사는 대체투자자산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투자자산 전건에 대하여 분기별 리뷰를 시행하고 이를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활용하여

분기별 리뷰 등을 통해 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자산건전성 분류 시 계량지표 변동(평가값 하락), 현금흐름 관련 결과 발생(배당중단, 부도발생 등) 사실만을 중심으로 평가·반영하고, 개별 자산의 비계량적·정성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는 등 개별 자산의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였고,

「대체투자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따라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자산 중 특이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시' 자산으로 별도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정의 내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산별로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담당자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등 정상 자산 내 보유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별 자산의 잠재 위험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선제적 위험관리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산 리뷰 등급 중 '주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산의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분석·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